

“공격적 마케팅 통한 행사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지스코 전경

지난달 세라믹 학술대회 등 분야별 행사 열어 올 하반기 이후에도 컨벤션·전시회 등 개최 여름·겨울 장기이벤트 유치 문화향유 기회 제공



지스코에서 펼쳐지는 학술대회



전북 베이비 페어



군산아트페어

지난달 다양한 성과 거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가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형 학회·국제행사 및 이벤트 유치 개최를 통해 '전북 마이스(MICE)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마이스란 회의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머리 글자를 딴 용어로 여수 세계엑스포 같은 초대형 박람회를 개최하는 일부터 국가 정상 회의와 각종 국제회의 개최, 상품·지식·정보 등의 교류 모임 유치, 각종 이벤트 및 전시회 개최 등이 모두 마이스 산업에 포함된다. 지스코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난달에 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학술대회(350명), 한국세라믹학회 학술대회(1000명),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600명)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400명) 등 다양한 분야의 컨벤션 행사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크고 작은 행사 개최

올 하반기에는 대한홍외과학술대회(200명), 대한전기학회 추계세미나(300명), 한국해양수산선진지식인 학술대회(400명), 한국물리학회 전

북지부 학술대회 등 크고 작은 학술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8월에는 해외 55여개국 200여명과 국내 3백여명이 참가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를 비롯하여 10월엔 세계최대 규모 40개국 1천2백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건강기능식품학회(ISNEF)'가 개최된다. 또한 지스코는 컨벤션 행사뿐만 아니라 새만금산업단지과 연계한 각종 전시회 유치를 통해 전북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8월에는 전국 1백여개 대학 1백80개 팀이 참가하고 수천 명이 방문하는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와 선유8경 청년서포터즈 국제포럼, 전북 베이비페어 등 대형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군산시가 주최하고 지스코가 주관하는 제2회 군산아트페어에서는 전북지역 작가들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공방, DIY, 공예 체험공간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이 내년의 지스코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신규 전시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내년 5월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에 걸맞게 '어린이 직업체험전(Kid Job Vision)'과 장난감과 인형, 캐릭터, 취미기구를 활용한 온 가족 놀이터 개념인 '키덜트 페어 (Kidult

Fair)'를 준비 중이다. 군산 타타대우상용차와 원주 현대상용차 등 전북의 상용차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2018이색 자동차전시회를 개최하여 클래식카, 캠핑카, 튜닝카 등을 유치, 기존 모터쇼와 차별화 할 방안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족했던 전시회 개최를 위해 민간 주최자들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용품 전시회',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연말 빅 이벤트로 합합콘서트 등을 개최하는 동시에 여름철과 겨울철 장기이벤트를 유치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역 MICE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지스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스코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올해 2월 17일부터 향후 3년간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대학, 호텔, 여행사, 관광업체 등으로 구성된 '군산 마이스얼라이언스(MICE Alliance)'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스코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산=장현 기자

扶來 부안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제5회 전국 농악 경연대회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대상 대회 >

일시 : 2017. 5. 5(금) 09:00 ~ 15:00

장소 :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 주최/주관 : 부안농악보존회,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 대한민국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의회